





백승의 사후에 다시 불독도 일하고 배강도 할수있으나  
 제 1회공역이 불어의 침공으로 남한은 무국경이므로  
백승과 함께 백승의 침공으로 남한은 무국경이므로  
 장관인 백승의 침공으로 남한은 무국경이므로  
 김일성은 평양까지 내려와 양강도 산간  
 백지 백승이 잡혀 있어 있다면서 제 1회공역 총  
 화 회의로 열고, 전쟁에서 실패로 당한 원인을 전역과  
 무정, 망조산, 큰 김일자에게 넘겨 주었고 자기는 허수에서  
 내려다 볼기한 구경꾼으로 곁을 보고 아래 백승에게  
 장관 남한을 점령한다던 허담이었다 그의 생각대로  
 중국 지원군이 들어 오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 하였으나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국지 기습에서 중국 공산군도 백승  
 쓰러트리는 백승의 칼날은 인원은 대포양으로 발사했다  
 이후 김일성 사령관은 백승에게 중국 지원군을  
 직접 하여 백승을 잡으라 하여 백승의 전선 지도는 백승  
 백승의 침공 2개의 전선 사령관 즉 - 동북전선,  
 서북전선 조직하는 동시에 전선 평지국은 없애고  
 전사 지원자로 들어가 백승의 동북의 본조 지원부를  
 두어 백승의 침공을 방해하였다.



최근 하기 위하여 많은 리정촌 장구하여서 <sup>경정성</sup> 리고해

많은 구역을 통했다 북한 인민군대 무력분출으로 1950년

시원 날일 불어 풍구인민 리원군이 <sup>한미연포의 구도도 들</sup> 영 (에) 나 11일이 조공

국경을 넘어 3.8 선 전역에 <sup>한미연포의 구도도 들</sup> 리치리었으나, 1950년

앞에 개천 송원강 유역 개천 전후에서 유엔군과 북방군

에 대한 포위작전에서 성공을 볼후 평양, 서울을 다시

점령한 다음에는 다시 3.8 선까지 후퇴하여 동북전선

에서는 용진반로에서 시작하여 개성 판을 접을지나

철원 고성을 통하여 개천을 이룩한 1951년 하기 불어

양쪽 군대가 위역정찰을 하면서 서로 <sup>한미연포의 구도도 들</sup> 실력 접촉은

하였으나 아무런 큰 공격 전은 없이 쌍전지전에

전후에서 있었나 이러한 형편에서 조공측을 한도인

으로 하고 유엔군측이 한도인도 아닌 정전 단판은

1953년 7.28 <sup>조공측의</sup> 무리 용진반로에서 적고 정세가 변악한

나라가 <sup>한미연포의 구도도 들</sup> 힘에 지은 전쟁은 계속하였으나 나라의 경제력이라

어 말할바 없이 쇠퇴하여졌으나, 휴전의 관련하여 속노된

군대라 하여도 80%의 구역을 1%의 산주의 범역은 유구

해야 했다. 군대란 전쟁이 없이 광기만 안전하게 유지하

려면, 군인들의 건강성이 마비되면, 군량도 안일한 생활에서

부화한 생활이 <sup>한미연포의 구도도 들</sup> 감이되며, 위협사건의 장은게 되고 방어가







꼭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sup>9</sup>그동안  
중앙의 지시에 따라 초원에서 온 간부들이 무슨 행동으로  
하든가 감시적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작은  
김일과 그의 동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면서 ~~화장실에~~ 화장실에 가지  
않아 단거리 감시하곤 했었다.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비열적이기  
때문에 작은 김일은 그 외사부장을 붙잡고 종견교를 하려고  
하였다. 작은 김일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들로 그 열한  
화장실에 들어가 쫓겨있다가 김일이 나온 인적이 가나  
뒤뜰의 나무 밑에서 있었다. 이 때문에 작은 김일이 그놈을  
세워 놓고, 왜 사냥의 뒤를 그렇게 따르느냐고 물어  
자기는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거지 김일 동리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면 왜 두 번이나  
내가 여기에 왜 너도 모는 거냐? 고 물어, 그것은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갈 거지 군사위원들의 뒤를  
따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라식 우주의 위엄을  
다 가지고 흥분도를 하든가야 하면서, 외국 손님들이 오셨는데  
죄만 하게 볼지 말라 그 말 듣고 싶어 쫓겨가야 하니, 화를 받기  
초월해서, 그런 더 <sup>어떻게 할지</sup> 군사위원인가? 내가 더 광명동리의 부관  
인가 하면서, 제야 큰 소리를 치면서 야만 비참하게  
했다.

어디에 2월회를 갖기로 한 것은 그리 많은 곳에서 <sup>(10)</sup> 노은 반포리가  
4기에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장영봉 배를 걸음으로 그곳에 가서  
같은 김일이는 의사부장 정문은 상화를 알릴로 금동리에서  
그 당시 구하하려던 것이었다. 장영봉 군사위원은 심복한 같은  
김일이를 볼 줄은 알면서 외국 손님들이 보기에 장영봉이 서른 차원  
것은 나라의 큰 망신이니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서 알렸다.  
의사부장은 한해 이역났고 힘도 받아 어리둥절 놀라, 네놈이 할  
나 우쭐리리인 단야라? //

이 쟁투가 끝난 후 약 1주일의 재부와 민족보위성  
당 열성자 회의가 진행되니 꼭 참석하라는 통지서가 항공  
사령부 군사위원 장영봉에게도, 또 서북전선 군사위원장은  
김일이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1958년 1월 20일  
이었다. 당 열성자 회의 민족보위성 중앙 회의실에서 전  
되었다. 그 주석단에는 민족보위성 최동건 최우 등  
당 중앙위원회의 대표 김창안 신전복관, 홍삼모장, <sup>김광현</sup> 홍광희  
국장, <sup>부부</sup> 홍삼모장 겸 작전국장 등 4이 등장하시니 아래  
에는 참가연자로 각 군단, 집단군 전선, 각 병동 사령부  
사령관들, 군사위원들, 정치부장들이 참석하였다.  
당 열성자 회의 순서는 단 하나뿐 - 부분적 지도관복  
들의 당 정치 규율 위반에 대하여.

원칙

당 몇몇자 회의 본근은 <sup>남</sup> 동정식중 조력복광의 <sup>11</sup>취향  
 본근에서는 규일의 목내 군사정리 정기에 대하여 간  
 히분서하고, 규일의 정세와 정반대를 일부 장령등은 안일  
 복화한 생활 봉착하여 민족분위성의 명령서를 존엄성있게  
 이의의 상황에서도 각종 기회와 조건을 리용하여 <sup>12</sup>연필히  
 집행해야 할대신에 그 명령서 내용을 규안들에게 전달도  
 하지 않고 의뢰고 자행고하면서 수정권의 경향을 발휘하면  
 서 원년군대내 유폐안리제를 파괴하는 한편 상부와 하부를 리탈시  
 킬 <sup>13</sup>행동을 꾸꾸고 있다. 특히하면 <sup>14</sup>재부 전선 군사위원 김일소장  
 이 그러한 행동을 간행하고 있다. 그는 원년군대내 군사계급  
 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집단군, 연방부대, 부대 각 구문대마다  
 이르기까지 양정적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당총회등을  
 진행할 때 대한 민족분위성 명령을 기억하고 조롱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비당적 대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외에  
 김일동지는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장항봉 등등과 함께 자  
 기 라듯대로 위국원론의 신년 기념행사를 참가하면서  
 위사 부장과 사훈하 ~~다~~고 장항봉 군사위원과 같이 "저  
 바랄지만 부대 출신 무식재 어이들은 곧 출애둥아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sup>15</sup>정인성 항일부대 전출을  
 계몽하는 원년군대 <sup>16</sup>군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행동이다.

당연 성과 대회에서 <sup>12.</sup>진출한 날로서는 그동안 중앙위원회  
선전부장, 그 당시 ~~연변군대~~ 당 서상길도 홍지르기로 있게  
내 친구마다 소련간부관속으로 대한 반식간으로 허위말  
를 발송 위조하여 연변군대내에서 소련간부들은 추방하여  
는 허가이 안산, 박창목 ~~정동양~~ 선전부장 현직 정책의  
게속이였다.

기쁜 보리가 끝난 다음, 오래동안 호른참 가라르기 있다  
가 (사전에 준비시킨 쿠를 호른차트) 서부정전 사령관  
리권우, 불의성 군사교육국 학국장 허병학, 불의성 일반무장  
장 정영문, 집현총관 유성철, 평화안전부장 심산 등이 호른에  
참가하였다. ~~이런 나쁜 짓은 호른에서 나쁘지 않았다.~~  
심산 등자와 초현 사령관은 김일동지의 ~~남아~~ 환영하  
호른하였다. ~~북정적 가라르기~~ 대하여 어떤 말하든 ~~말~~  
치 않자 ~~남아~~ 심수만 한 것 같은데 ~~이런~~ ~~말~~ ~~은~~ ~~동~~ ~~사~~ ~~를~~ ~~한~~ ~~것~~  
중요적이 되고 ~~나~~ ~~는~~ ~~것~~ ~~이다.~~

그러나 ~~저~~ ~~러~~ ~~곳~~ ~~곳~~ ~~으로~~ ~~가~~ ~~서~~ ~~는~~ ~~것~~ ~~이다.~~ ~~연~~ ~~간~~ ~~에~~ ~~는~~ ~~남~~ ~~아~~ ~~서~~  
북쪽 불의성은 다음 같은 ~~인~~ ~~으로~~ ~~내~~ ~~었다.~~ ~~김~~ ~~일~~ ~~의~~ ~~변~~ ~~화~~  
주들의 ~~변~~ ~~화~~ ~~는~~ ~~연~~ ~~변~~ ~~군~~ ~~대~~ ~~의~~ ~~상~~ ~~부~~ ~~와~~ ~~하~~ ~~부~~ ~~를~~ ~~이~~ ~~한~~ ~~것~~ ~~이다.~~  
아주 ~~중~~ ~~요~~ ~~한~~ ~~행~~ ~~동~~ ~~이~~ ~~며,~~ ~~외~~ ~~국~~ ~~주~~ ~~의~~ ~~영~~ ~~화~~ ~~하~~ ~~고~~





